

# 명태군 특검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 국힘 “위헌·정략적 법안” 당론 반대 우 의장, 상법 개정안은 상정 보류

명태군씨의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군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간 최대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태군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고, 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

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표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태군 특검법 부결을 당론 방침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인은 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정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항의한 데 대해서도 “의정이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바꾸기 하는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을 규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명태군 “검찰 불신...정치인 민낯 밝혀야”

### 명씨 변호인 “특검 재차 요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군씨가 재차 특검을 요구했다.

명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입구에서 “(명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씨가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자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명씨가 옥중에서 짧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명씨 입장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한결같다”고 답했다.

그는 명씨가 많은 정치인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 이날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저희 측에서 흘러간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명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에 수감된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철뉴스

## 민주 경제특위 통상 책임자 초청 트럼프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7일 주요 기업 통상 책임자 및 경제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정책·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메가(MEGA·Make Economy Great Again)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운영총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롯데디지털 임성복 부사장, 이계인 포스코인더스트리얼 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종석 만남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내란 종식 시키고 조기대선 준비 광주인(人)포럼 내달 3일 출범식

### 강 시장 주도 구청장들 참여 시민 1만여명 3·3 광주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하는 대규모 정치세력이 포럼 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 시장을 필두로 지역 구청장들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내년 지방선거 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문인 북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아 대선을 방해로 하는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인(人)포럼이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3·3광주선언과 함께 출범식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시민 1만여명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내란종식, 헌법수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회장, 박규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의 특별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 방안 등도 논의한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표 등도 일정에 따라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의 개념이 큰



광주인(人)포럼 포스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도위원으로는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남구청장·박병규광산구청장이 임명됐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문인 북구청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조기 대선 지원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조직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선거준비에 나서지만, 이번에는 대선이 먼저 치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럼 출범 등을 통해 대선 조직과 동력을 지방선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선거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럼 준비위 관계자는 “무자비한 군부 폭력에 맞서 싸웠던 80년 오월의 광주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 꽃을 피우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파멸과 내란 종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광주인 포럼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박지원 “이재명 2심서 무죄 나올 것”

### “유죄 나와도 대선 지장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사진)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정무적 판단하든,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라면 벌금 80만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선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반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탈고 갔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기대선은 박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



서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대 49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명태군 씨가 뺑·과장은 있지만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말하면 반드시 증거를 따 내놓더라”고 말하면서 “어제 공개된 김건희 여사 육성 통화 내용이 ‘명태군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